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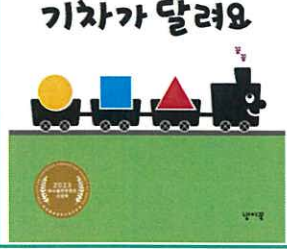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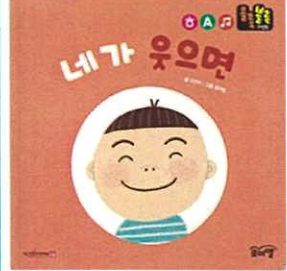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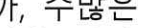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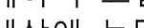



# 2024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 1단계 도리도리(연나이 1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같이 놀까?	이예숙	천개의바람	2022	
2	곰 공 콩	원지현	한림출판사	2023	
3	기차가 달려요	곰곰	냉이꽃	2023	
4	내가 웃으면	신연미	로이엘	2019	
5	누구네 아기야?	홍지니	킨더랜드	2020	

## >> 1단계 도리도리(연나이 1세 대상)




6	눈 코 입	백주희	보림	2017	<p>코코코코 놀이를 꼬리 잇기 형식으로 살짝 변형해 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확장했다. 아기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차례로 등장시켜 흥미를 더하고, 서로 다른 생김새를 비교하며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시작이나 끝이 딱히 없는 원래 놀이와는 달리 아주 사랑스럽고 재치 있는 '끝'도 갖추었다.</p>	
7	무엇이 보이니?	이주희	한림	2018	<p>엄마와 아빠는 배 속에서 꼬물거리는 아기를 기다린다. 누구를 닮았을까,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언제쯤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과 기대를 한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익숙했던 부모도 시선이 달라진다. 부모는 아기와 눈을 마주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공감하며 새로운 눈을 갖는다. 이 책에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 때까지 부모와 함께하며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감동과 행복이 담겨 있다. 이제 갓 세상에 눈뜬 모든 아기들과 부모를 위한 책이다.</p>	
8	반짝	최정선	보림	2021	<p>'반짝'이라는 낱말로 빛의 반짝임과 깨어남과 활기로 가득한 아침을 그려낸다. 동이 트고 여명이 비추며 살아있는 것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의 반짝임, 아침햇살을 받으며 활기가 되살아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반짝'이라는 낱말 하나로 재치 있게 담아냈다.</p>	
9	방긋, 안녕!	가애	창비	2021	<p>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인식하며 감정을 배우고, 사계절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자라는 모든 아기를 위한 그림책이다. 꽃, 해, 구름, 나무, 눈사람 등 친숙한 자연물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다정하게 반긴다.</p>	
10	부릉부릉 누구 생일?	김정희	사계절	2022	<p>부릉부릉 생일 자동차가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해 주러 간다. 물방울, 구름, 달님은 모두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후' 하고 바람을 불어 생일 자동차의 촛불을 끈다. 생일 자동차를 따라 귀여운 캐릭터들이 경쾌하게 묻고 답하는 대화를 읽어 보면 다양한 의성어와 리듬감 있는 문장이 아기의 말과 표정을 풍부하게 해준다.</p>	



## >> 1단계 도리도리(연나이 1세 대상)

11	빨주노초파남보	잘 웃는 토끼	블루래빗	2023	<p>일곱빛깔 무지개 색을 따라 과일과 음식, 동물, 자연, 옷 등의 다양한 이름을 배운다. 또한 사각사각, 동글동글, 아삭아삭, 팔랑팔랑 등 말놀이의 재미가 살아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풍부한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p> 
12	아빠랑 나랑	조현진	노란상상	2022	<p>아빠와 아이의 사랑을 담은 그림책이다. 밝고 다정한 그림을 통해 동물들의 생태를 표현하며,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로 동물들의 행동 및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p> 
13	열매가 톡!	김중석	사계절	2023	<p>넓게 드리운 나무에서 열매가 톡! 떨어진다. 동그란 모양은 갈아도 파랑, 초록, 빨강 등 저마다 다른 색의 열매를 찾으며 책장을 넘기는 재미가 가득하다. 태어난 지 3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색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아기들에게 다양한 색깔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책이다.</p> 
14	우리 아기 어디 있지?	이상교	한울림어린이	2023	<p>아기 판다, 고슴도치, 기린, 악어가 엄마가 찾아 주기를 바라며 저마다 꼭꼭 숨어 있다. 귀여운 아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대상 영속성 개념을 형성하는 우리 아기에게 엄마 아빠와 건강한 애착을 돕기 위한 즐거운 그림책이다.</p> 
15	잘한다 자란다	김수정	빨간콩	2021	<p>혼자 힘으로 성장을 시작하는 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은 영유아 보드북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아기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다. 혼자 서고, 혼자 걷고, 혼자 먹는 발달 행동이 시작되는 시기의 아기들에게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 가족들의 '잘한다'는 응원과 격려는 아기를 쑥쑥 '자라나게' 한다. 아기에게 이 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며, 아기의 성장의 순간들을 함께하자.</p> 

## >> 1단계 도리도리(연나이 1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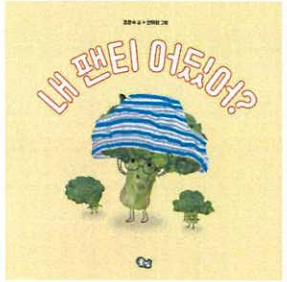



16	<b>찾았다! 우리 아기</b> 이 책의 글을 쓴 이상교 작가는 베테랑 동시 작가답게 반복으로써 운율의 묘미를 살려 책을 읽고 듣는 즐거움을 한껏 끌어올렸다. 그림을 그린 윤순정 작가는 개성이 담긴 판화 기법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아기 캐릭터를 만들어 냈다. 귀여운 숨바꼭질 놀이가 얼마나 유쾌하고 재치 있게 펼쳐지는지 책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상교	그린북	2023	
17	<b>춤춰요</b> 잠에서 깬 아기가 노랫소리에 맞춰 율동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책이다. 머리에서 시작하여 어깨, 팔, 손, 엉덩이, 다리를 거쳐 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작을 취해 보며 신나게 춤추는 아기의 모습을 보여 준다. 아기가 책을 보고, 장면에 나오는 춤동작을 따라 해 보면서 신체적 움직임이 향상되도록 도와준다.	장순녀	소원나무	2023	
18	<b>후후후</b> 아이가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 '후후후' 입김을 분다. 그러면 동동동 떠오른 비눗방울이 멀리멀리 날아간다. 이번에는 종이배를 물에 띄우며 '후후후' 입김을 분다. 종이배는 아이의 바람을 타고 동실동실 떠간다. '후후후' 입을 모아 바람을 불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후후후' 입김을 불어보는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놀이하며 즐길 수 있는 0~3세 그림책이다.	서지연	천개의바람	2020	





# 2024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 2단계 아장아장(연나이 2~3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나가서 놀래	이상교	한울림어린이	2023	 <p>이상교 작가는 얼른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반복되는 낱말과 리듬감 있는 문장으로 맛깔스럽게 표현했으며, 김성희 작가는 특유의 밝고 따스한 그림으로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을 그려냈다. 독립심이 커지며 뭐든 스스로 해 보려 하는 우리 아기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고, 웃 입는 시간을 놀이로 만들어 주는 그림책이다.</p>
2	내 팬티 어딴어?	조은수	풀빛	2021	 <p>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조은수 작가 글에 안태형 작가가 실제 유아 티셔츠와 팬티, 채소를 찍은 사진에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장면을 만들었다. 한 장면을 위해 수십 장을 고치고 또 고쳐서 만들었다. 두 작가는 아이들이 이 책을 낱낱대며 재미있게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한다.</p>
3	내가 도와줄게!	수목	사파리	2021	 <p>협동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 주는 인성 그림책이다. 그림책 속 꼬마 개구리의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날려 높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꼬마 개구리가 목도리를 되찾으려고 힘껏 폴짝폴짝 뛰어 보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모습을 본 병아리와 토끼, 아기 돼지 등 친구들이 차례로 다가와 꼬마 개구리를 도와준다.</p>
4	노랑 노랑 봄봄	최정선	보림	2023	 <p>노랑이 노랑을 찾고, 노랑이 노랑을 부르는 봄 그림책이다. 간결하면서도 귀여운 반전이 있는 스토리에, "노랑노랑"이 반복되는 명랑한 리듬의 글은 노랫말처럼 소리 내어 읽기에 좋다. 다채로운 의성어와 의태어로 우리말 고유의 말맛과 감각적인 재미를 흠뻑 맛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p>
5	다같이 짹짹	유재이	그린북	2022	 <p>동물들의 특징을 체조 동작에 결합시켜 아기들도 쉽게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꾸민 보드북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일 자체가 난관인 아이들이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하면서 천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누워서 할 수 있는 동작, 앉아서 할 수 있는 동작, 서서 할 수 있는 동작으로 순서를 정했다.</p>



## >> 2단계 아장아장(연나이 2~3세 대상)

6	무엇이 다를까	김종현	개똥이	2020	
7	밤사이 폴짝	연주	한림	2023	
8	안녕 인사했더니	허은미	한울림어린이	2018	
9	엄마가 안아 줄게	김은정	그린북	2022	
10	엉덩이 친구랑 응가 똥!	정호선	푸른숲주니어	2017	

## >> 2단계 아장아장(연나이 2~3세 대상)

	열 밤 더	이서영	위즈덤하우스	2023	
11	가만가만 기어 다니던 아기가 어느새 두 발로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긴 기다림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분명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의 시간을 다정하게 다독이며, 우리 아이들이 셋노란 옥수수처럼 단단히 여물며 자라나길 응원하는 그림책이다.				
	오나, 안오나?	김정선	산하	2022	
12	새로 산 우산과 장화와 비옷을 입고 놀고 싶은 아이와 강아지의 설렘, "오나, 안 오나?" 먹구름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기다리는 마음, 비 놀이의 즐거움과 아이와 강아지를 지켜보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그림책이다.				
	오늘도 고고고!	석철원	만만한책방	2022	
13	온종일 다양한 행동을 하고 또 하는 아이들은 매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한다. 아이들에겐 신기하지 않은 일이 없다. 『오늘도 고고고!』에는 웃고 재잘거리고 때로는 울고불고하고 먹고 싸고 자면서 행복해하는, 그렇게 오늘도 크는 아이들의 즐거운 시간이 담겨 있다.				
	이불에 폭!	한얼	책읽는곰	2022	
14	다람쥐의 이불은 어떤 소리를 낼까요? 흰둥가리의 이불은 어떤 색깔일까요? 해달의 이불은 어떤 촉감일까요? 바스락바스락, 알록달록, 파삭파삭, 포슬포슬, 보들보들... 다람쥐, 흰둥가리, 병아리, 두더지, 해달에 이르기까지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의 이불이 내는 소리, 색깔, 촉감 등을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해, 보는 즐거움에 듣는 즐거움을 더한다.				
	친구친구	김복태	보림	2021	
15	편안한 파스텔 톤으로 아기들이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그림책을 볼 수 있고, 두 박자 구조의 이야기마다 색감이 자연스럽게 변해서 아기들이 이야기의 흐름 변화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세상은 다양하고 나와 다른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기 때부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 준다.				



## >> 2단계 아장아장(연나이 2~3세 대상)

	폴폴폴 밥 먹자	심조원	호박꽃	2009	
16	<p>0~3세 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춰, 짧고 쉬우면서도 노래처럼 부를 수 있게 이야기의 운율을 살렸다. 의성어와 의태어로 이끌어가는 글은 아기들이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할 수 있다. 세밀화 어린이 그림책을 오래도록 만들어 온 편집자가 오랜 경력의 전문 세밀화가와 함께 만든 아기를 위한 자연관찰 그림책이다.</p>				
	풍선이 좋아	이은선	봄봄출판사	2022	
17	<p>아기는 풍선 놀이를 하며 풍선이 가진 특성을 몸으로 배운다. 말랑말랑한 풍선의 촉감과 날아갈 듯이 가벼운 풍선의 무게감을 느낀다. 한참 놀던 아기는 풍선과 하나가 되어 즐겁게 뛰어다닌다. 이 그림책은 아기가 자유로운 놀이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p>				
	해님의 휴가	변정원	보림	2018	
18	<p>'비가 내리면 해님은 무얼 할까?' 작은 호기심, 사소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해님의 휴가』는 우리를 유쾌한 상상의 세계로 데려다 준다. 또 누구든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도 소중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해처럼 존재가 아주 당연한 것들까지도.</p>				










# 2024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 3단계 푸욱푸욱(연나이 4~5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감자 친구	길상호	씨드북	2022	
	친구를 찾아 나선 감자의 놀라운 발견. 여기, 친구를 사귀고 싶은 감자가 있다. 작은 감자는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 병아리, 사과, 가지, 고구마를 차례로 만나면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작고 귀여운 감자의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생물에 관한 과학 지식을 얻을 수 있다.				
2	겨울 이불	안녕달	창비	2023	
	작가 특유의 사랑스러운 상상이 탁월하게 발휘된 작품으로, 겨울날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보내는 평화로운 오후 한때를 그리며 가족 간의 사랑을 전한다. 다정한 온기를 품은 특별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추위에 지친 모두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녹인다. 가족과 이웃, 먼 곳의 동물들까지 누구도 외롭지 않게 겨울을 보내기 바라는 작가의 섬세한 마음이 선물처럼 담겨 있다.				
3	고구마구마	사이다	반달	2017	
	아이들과 함께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며 살펴본 고구마들의 생김새들이 머릿속에 술술 떠올라 신나게 만든 이야기다. 고구마 덩굴이 주렁주렁 자란다. 기다란 덩굴을 쭉쭉 뽑아 올려 보니 가지각색 고구마들이 쭉쭉 머리를 들어 올린다. 이제 고구마들이 인사할 차례이다. '고구마는 둥글구마.', '고구마는 길쭉구마.', '크구마.', '작구마.' 고구마의 생김새들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하고 책장을 넘긴다. 둥글구마, 길쭉구마, 크구마, 작구마 하고 말하는 우리 입이 툭툭 쏘는 사탕을 먹는 듯 툭툭 튄다.				
4	그날 밤에	차정윤	현암주니어	2023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 겪어 봤을 듯한 일을 세심한 관찰과 표현으로 그려 낸 그림책이다. 얼룩진 이불을 꺼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울먹울먹한 아이의 얼굴이 가득한 장면이 이르러 아이와 시선이 맞닿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고스란히 읽는 이에게 전해진다.				
5	그래! 이 닦지 말자	여기 최병대	월천상회	2023	
	작가의 청개구리 육아 경험이 만들어 낸 새 창작 그림책이다. 억지로 하게 하는 훈련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도, 그는 양치든, 독서든, 잠자기든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경험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웃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웃음을 유발하는 장난이 꼭 필요했다고 한다. 그의 그림책이 유쾌한 웃음으로 가득한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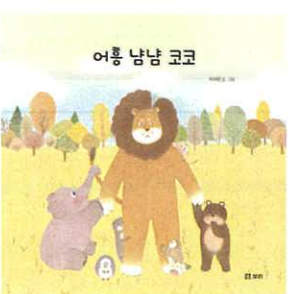





## >> 3단계 꾸욱꾸욱(연나이 4~5세 대상)

6	노란 줄무늬 고양이	최하진	재능교육	2021	
7	눈물문어	한연진	위즈덤하우스	2023	
8	달 항아리	수북	창조와 지식	2022	
9	독 독 꼬마 독 사세요!	김정희, 밤코	사계절	2023	
10	안아줄게	김복태, 김상아	보림	2023	





## >> 3단계 꾸욱꾸욱(연나이 4~5세 대상)

11	야호, 비온다!123	곰곰	냉이꽃	2022	
	개구리는 비가 오면 신나게 노래한다. 개굴 개굴 개굴. 책장을 위로 펼치면 개구리가 빗방울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어온다. 아기는 책장을 넘기며 책이랑 논다.				
12	어흥 남남 코코	이서영	보리	2022	
	숲속 언덕에서 홀로 지내던 사자. 어느 날 뜻밖에 아기 동물들을 돌보게 된다. 사자와 아기 동물들이 펼치는 우당탕탕 하루. 과연 사자와 아기 동물들은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심한 듯 보이지만 친절하 마음씨를 지닌 사자와 귀여운 아기 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져 보자. 때론 깔깔 웃게 하고, 때론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야기 속에 성장과 돌봄의 메시지를 담았다.				
13	얼음땡	문명예	시공주니어	2022	
	글 대신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책이다. 글 없이도 화면 속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교통질서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그림 속 사람들은 지나가는 차가 없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또 차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정지선을 지켜 정차한다.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한다. 작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교통질서 알려 주고,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게 해 준다. 이렇게 습득된 교통안전 정보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일상생활 습관까지 바로잡아 준다.				
14	엄마는 모를걸?	심은지	봄별	2022	
	엄마 몰래 벌인 난장판 속에서 마음껏 노는 아이의 즐거운 웃음, 엄마와 딸의 다른 듯 닮은 일상과 유쾌한 유대를 담은 그림책 어...? 내가 작아졌어! 이제부터 엄마 말 안 들어도 되겠다. 말랑말랑 달콤한 과자를 잔뜩 먹어 볼까? 우유에 풍덩 뛰어들어 목욕을 할까? 내가 뭘 해도 엄마는 모를걸?				
15	엄마는 변신중	박아림	월천상회	2021	
	아이들에게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였다. 하지만, 우리 엄마도 우리처럼 어린 아이였고 소녀였던 시절이 있었다. 삶의 여정은 새로운 변화와 발견, 만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던가. 우리 엄마들도 결혼, 그리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 아기를 만나고, 엄마가 되었다.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다시 새로운 페이지로 나아가는 엄마의 여정의 모습을 작가는 특유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친근한 캐릭터, 그리고 놀라운 색채를 버무려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 >> 3단계 꾸욱꾸욱(연나이 4~5세 대상)






16	완두콩 동그라미	최윤희	시공주니어	2022	
	<p>이 책은 완두콩 동그라미 모양의 퍼즐로 곤충의 몸통을 채우고, 이야기를 상상하는 활동을 담았다. 퍼즐을 손에 쥐고 여러 번 자리에 맞춰 끼우다 보면 아이들의 소근육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퍼즐을 끼우며 나비는 어떻게 몸짓하고,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등 '나만의 곤충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된다.</p>				
17	응가공주	박정희	천개의 바람	2020	
	<p>&lt;응가공주&gt;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똥 누는 법을 알려 주며, 나아가 어릴 때부터 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림책이다.</p>				
18	잠이 오는 이야기	유희진	책소유	2019	
	<p>책에 등장하는 '잠 친구'처럼 매일 같은 시간, 가방 안에 우리가 꿀 예쁘고 신나는 꿈들을 잔뜩 넣어서 찾아와 주는 존재라면 아이들이 잠에 대해 가지는 마음은 많이 바뀔 것이다.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잠아, 이리 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p>				
19	컵	수아현	시공주니어	2021	
	<p>책장을 넘기며 컵 쌓기 놀이를 체험하는 재미난 놀이 그림책. 교구용 컵이 아닌 머그컵, 수프컵, 찻잔 등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채로운 형태의 컵들을 보여 주면서 주변의 친숙한 사물을 놀잇감으로 재미나게 활용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더불어 크기와 길이, 넓이, 양, 균형감, 공간감 등 영유아 수준에서의 기초적인 수학 개념을 컵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p>				
20	한 그릇	변정원	보림	2021	
	<p>밥솥에서 밥들이 나와 바쁘게 준비한다. 점심에 먹을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들을 하나씩 불러들여야 한다. 싱그러운 물방울을 머금은 콩나물, 땅속에서 긴 시간을 보낸 양파와 당근, 깊은 산속에 사는 버섯에게 초대장을 보낸다. 또 다른 재료들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툭툭 튀는 재미난 상상력으로 한 끼 식사 of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림책이다.</p>				





# 2024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 >> 4단계 주옥주옥(연나이 6~7세 대상)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1	가을이 오리	한연진	보림	2023	
2	낙엽다이빙	강은옥	위즈덤하우스	2023	
3	내 이불이야	한은영	책읽는곰	2018	
4	내가 예쁘다고?	황인찬, 이명애	봄별	2022	
5	내거야 다 내거야	노인경	문학동네	2022	








## >> 4단계 짚쑥쑥(연나이 6~7세 대상)

6	노란 길을 지켜 줘	박선영	노란상상	2023	
7	달빛춤	김지연	키위박스	2023	
8	달팽이학교	이정록	풀과바람	2023	
9	뭐든지 나라의 가나다	박지윤	보림	2020	
10	아빠, 잠이 도망갔어	임수정	한울림어린이	2022	



## >> 4단계 직쪽쪽(연나이 6~7세 대상)

11	<p>여섯 살 친구</p> <p>연이는 오늘 참 외롭다. 멀리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 살던 동네라며 엄마는 들떠 있지만, 연이는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곳엔 같이 간식을 나누어 먹을 친구도, 놀이를 할 친구도 없다. 순이 할머니도 참 외롭다. 장성한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 살고, 할머니 홀로 커다란 집을 지키고 있다. "땡땡!" 적절한 순이 할머니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옆집에 이사 온 연이네 가족이다. 동네를 직쪽거리며 뛰어다니던 연이의 엄마가 어느새 자라 아이 손을 잡고 찾아오다니, 순이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 뽀로통한 연이가 보인다. 처음 만나 서먹한 연이와 순이 할머니, 둘은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p>	루치루치	국민서관	2022	
12	<p>옥두두두두</p> <p>맛 좋게 익어가고, 보기 좋게 자라나고, 듣기 좋게 펑펑 터져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먹거리가 되는 옥수수 이야기를 반짝반짝 담았다. 서너 번쯤 보고 나면 가슴 찡한 옥수수의 삶이 그제야 조금 보인다. 어쩌면 옥수수를 그저 맛있는 간식쯤으로 여기기만 했을 뿐, 작은 옥수수 알갱이인 슈슁이들이 하는 말은 들으려 해본 적이 없기에 글을 더 읽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책의 묘미는 여기에 있다.</p>	한연진	향출판사	2022	
13	<p>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p> <p>엄마가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낸 그림책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분리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와 부모 모두 건강하게 분리 불안을 극복하고 서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와 부모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응원한다.</p>	윤여림	위즈덤하우스	2017	
14	<p>전놀이</p> <p>《전놀이》는 모두가 잠든 밤, 놀기 좋아하는 송이버섯이 주변 음식 친구들을 깨워 씨름을 하며 밤새 뒤집고, 뒹굴고, 빠지고, 놀다, 마침내 전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그랑땡전, 육전, 새우전, 고추전, 표고버섯전, 애호박전, 동태전, 산적 등 8가지 '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익살스럽고 유쾌하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우리나라 대표 명절 음식인 '전'의 종류와 요리 과정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의 즐거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p>	동글, 강은옥	소원나무	2023	
15	<p>진짜 진짜 멋진 친구</p> <p>7컷 만화로 구성된 도입부에서 거북이는 자못 비장하면서도 코믹한 동작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데.... 오늘은 꼭 마음에 드는 친구를 찾겠다는 결심과 함께 대자연의 풍광이 펼쳐지고 그 속에 자리한 동물들의 등장과 더불어 '과연 거북이의 친구는 누가 될까?' 호기심을 자아낸다.</p>	이지	페이퍼독	2023	



## >> 4단계 푸욱푸욱(연나이 6~7세 대상)

16	<p>친구의 전설</p> <p>이지은</p> <p>웅진주니어</p> <p>2021</p> <p>“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한마디로 실없는 위협을 일삼던 허풍선이 호랑이와 하루아침에 호랑이의 꼬리에 탁 붙어 살게 된 꼬리 꽃이 지내 온 계절의 시간들, 그 일상의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 『친구의 전설』 사이사이에 소복하게 담겼다. 외톨이 호랑이는 꼬리 꽃과의 만남 이후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함께 보낸 시간들을 이 둘은 어떻게 기억할까? 한층 더 짙קות은 표정으로 동네를 호령할 호랑이와 그런 호랑이를 들었다 놔다 할 꼬리 꽃의 내밀하고도 다정한 이야기를 만나 보자.</p>	
17	<p>튤립 호텔</p> <p>김지안</p> <p>창비</p> <p>2022</p> <p>『튤립 호텔』은 흔한 들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봄날의 근사한 호텔리어인 다섯 마리 멧발쥐의 이야기이다. 멧발쥐들이 개구리, 참새, 무당벌레, 시궁쥐 등 작은 동물들을 위한 쉼터 ‘튤립 호텔’을 일구고 운영하며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다정한 시간을 담았다. ‘노키즈존’ ‘노펫존’과 같은 팻말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은근하게 꼬집으면서도 다시 돌아온 따뜻한 계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이야기이다.</p>	
18	<p>파닥파닥 해바라기</p> <p>보람</p> <p>길벗어린이</p> <p>2020</p> <p>작디작은 해바라기의 눈물겨운 생존기이다. 저마다 큰 키를 뽐내며 쑥쑥 자란 해바라기들로 가득한 어느 동산 속, 캄캄한 그늘 아래에 작은 해바라기가 살고 있다. 아주아주 작아서 아무도 해바라기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해바라기는 “해님 보러 가면 되잖아. 날개도 있으면서...”라는 꿀벌의 이야기를 듣고 잎사귀를 한번 파닥여 보았다. 꿀벌과 나비의 응원을 받으며 점점 더 열심히, 빠르게 파닥파닥 날갯짓을 하던 그때, 갑자기 투둑! 하고 땅속에 박혀있던 뿌리가 뽑히며 하늘로 가뽀히 날아올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라는 해바라기가 파닥파닥 날아올라 존재감을 보인다는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그림책이다.</p>	
19	<p>팔빙수의 전설</p> <p>이지은</p> <p>웅진주니어</p> <p>2019</p> <p>찌는 듯한 여름날 가장 생각 나는 음식 중 하나인 팔빙수에 대한 엉뚱발랄한 상상을 담은 그림책이다. 깊은 산속에서 할머니가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탕글탱글 과일이 익어 가고 달달구수한 단팔죽이 완성되자, 시장 내다 팔기 위해 할머니는 길을 나선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눈이 펄펄 내리더니, 새하얗고 커다란 눈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나는데....</p>	 <p>팔빙수의 전설</p>